



2019년 7월 21일(제938호)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보다 중심 집힌 삶을 향하여”

오늘 복음에 마리아와 마르타가 등장합니다. 많은 성화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관상적 삶’으로, 그리고 마르타는 예수님과 일행을 위해 갖가지 시중을 드는 ‘행동적 삶’으로 극명히 대비시켜 묘사합니다. 사실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속적 관심사에 얽매인 마르타를 나무라시고, 일상의 업무로부터 도망친 마리아를 옹호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교부들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 우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식사를 챙기고 접대하는 마르타 또한 예수님을 찬미하는 일에 몰두하는 마리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르타를 가정과 가사의 성인으로 추앙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지요.

저도 부끄러운 과거지만,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도와 교리연구에 열중하여 사회참여와 노동 문제에 무관심한 형제들을 '상투스(Sanctus: 거룩한 자)'라 비아냥거리며 시기할 때가 있었

습니다. 마치 복음에서 마르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루카 10,40)라며 시샘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리아나 마르타 모두 “예수”라는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과, 각자 다른 강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깨우치고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관상적 삶’에 치우치거나 ‘행동적 삶’만을 강조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분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묵상과 기도생활을 통해 예수님과 나의 뜻을 일치시켰을 때, 나의 모든 일상과 활동은 보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윤형식(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별신(5시판)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창세 18,1-10ㄴ

회 답 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 2 독 시 콜로 1,24-28

복음 반포송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복 음 루카 10,38-42

영 성 제 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성인명: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柳恒儉 Augustine)
 신분: 양반, 회장, 순교자
 활동연도: 1756-1801년

전주 초남이(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양반 집안에서 1756년에 태어난 유항검(柳恒儉) 아우구스티노는,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전라도 지역 최초의 신자가 된 것이다. 1801년에 순교한 유중철 요한과 유문석 요한은 그의 아들이고, 그 이듬해에 순교한 이순이 루갈다는 그의 며느리이며, 유중성 마태오는 그의 조카이다.

유 아우구스티노에게 교리를 가르쳐 준 사람은 경기도 양근에 살던 인척인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였다. 그는 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집에서 주요 교리를 배우는 동안 이를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내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뒤에 고향으로 내려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가족과 친척은 물론 그의 집에 있던 종들도 모두 그의 전교 대상이 되었다. 이제 유 아우구스티노에게는 빈부귀천이 따로 없었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가난한 이웃은 물론, 자신의 종들에게도 애공과 희사를 베풀었다.

1790년, 북경의 구베아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유 아우구스티노는 신주를 땅에 묻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에 이중사촌 윤지충 바오로가 제사를 폐지한 죄로 체포된 뒤, 잠시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가 전주 감영에 자수하여 형식적으로 배교를 선언하고는 석방되었다.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유 아우구스티노는 전라도 교회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가장 일찍 체포되었다. 이어 그는 전주에서 한양으로 압송되었으며, 포도청과 형조, 의금부를 차례로 거치면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박해자들은 선교사와 서양 선박 요청 계획의 주동자로 유 아우구스티노를 지목하고 모든 것을 실토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있던 그는 결코 신자들을 밀고하거나 교회에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박해자들은 결국 유 아우구스티노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이에 그들은 그에게 모반죄를 적용하여 능지처참을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유 아우구스티노는 전주로 옮겨져 10월 24일(음력 9월 17일) 남문 밖에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복 음 록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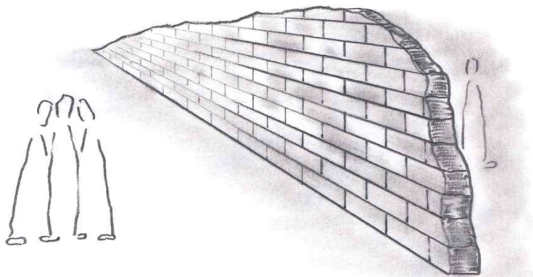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마녀사냥

벽을 쌓고
 외면하고
 뒤에서
 속닥속닥

그렇게 우린 또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모르지
 내일은 내가
 그 대상이 될지.



상화이야기



중앙 제단화의 세례자 요한

피스 맵탕, 1479년경 제작 / 오크페닐 위 유희
 중앙제단화 173.6x173.7cm
 양원 제단화 각 176x78.9cm
 브뤼헤 상요한병원, 벨기에

스물네 원로는 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좌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제단화 뒤쪽 배경에 나오는 장면들은 2장부터 12장에 걸친 내용을 차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주에 소개하겠다.

세례자 요한 제단화

본 제단화는 사도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계시를 받으며 요한 묵시록을 집필하는 것이 주제로, 제단화 전체가 요한 묵시록 1장부터 12장의 말씀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우측 하단에 맨발의 사도 요한이 바위에 앉아 있고, 왼편의 열린 하늘을 통해 ‘천상 예배’를 목격하고 있다.

이 ‘천상 예배’는 요한 묵시록 4장 1절에 기반한 것인데,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 소리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올라오너라. 이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좌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이셨고, 어좌 둘레에는 취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어좌 둘레에는 또 다른 어좌 스물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좌에서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중략)

김은혜(벨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6주일: 동송 료병환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7월 21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7월 23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교구 ‘잇숨 상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모든 이를 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